주식전략

FOMO는 어디까지 왔는가

분석의 기본 가정

- 물가지표와 지정학 리스크를 빌미로 조정이 있더라도 시장은 반도체를 최선호할 것
- 증시 활황의 간접 수혜가 기대되는 1)증권, 2)프리미엄 소비재에도 관심

주식전략 이상연
T.02)2004-9045
lee.sang-yeon@shinyo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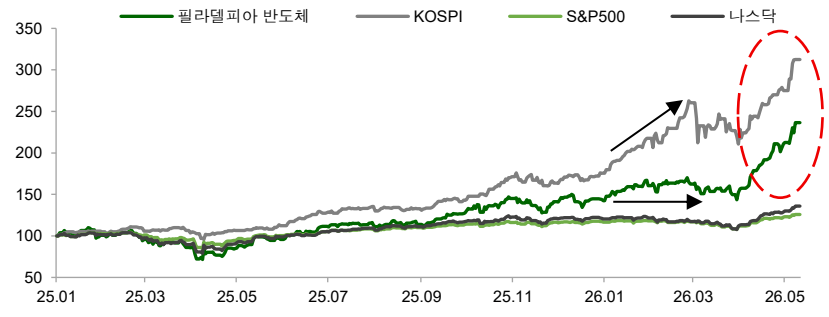
연초 대비 높아진 글로벌 증시 연동성

최근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동반 신고가 흐름을 보이며 KOSPI 상승 동력이 강화되고 있다. 다만 이는 국내 증시의 흐름이 연초대비 글로벌 증시와의 연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미국 CPI·PPI 발표, 미·중 정상회담, 미국-이란 전쟁 관련 불확실성 등에 따라 단기 차익실현 매물이 확대될 가능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KOSPI와 S&P 500의 ADR지표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점 역시 상승 종목 확산 폭이 둔화되며 시장이 소수 AI·반도체 주도주 중심으로 쏠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단기 과열 부담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단기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5월 20일 예정된 NVIDIA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은 다시 AI와 반도체 업종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아직 포지션 축소를 고민할 시점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강세장의 양면: FOMO와 사치 소비의 확대

강세장 국면에서는 주도 업종뿐 아니라 증시 활황의 간접 수혜 업종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거래대금 확대에 따른 브로커리지·신용공여 수익 개선이 기대되는 증권 업종과 소비 양극화 흐름 속에서 수요가 유지되는 프리미엄 소비재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 고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해외여행 및 해외 소비 부담이 확대되면서 일부 소비 수요가 국내 프리미엄 소비로 이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백화점, 프리미엄 뷰티, 미용의료기기 등 가격 전가력이 높은 내수 소비 업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도표 1. 연초와 달리 급등 중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초 대비 높아진 글로벌 증시 연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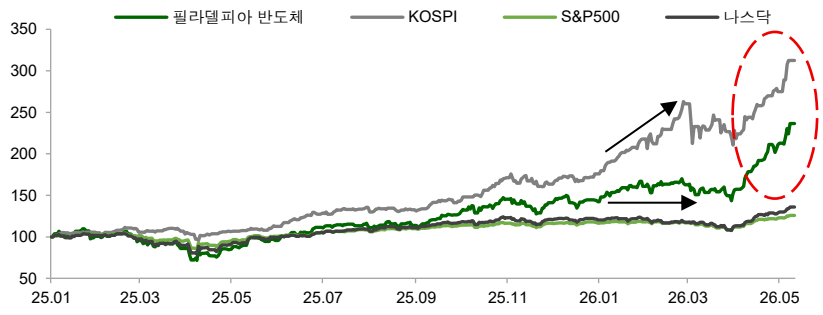
AI 밸류체인에 대한 투자심리는 견조하겠으나 아직 외부 변수 리스크는 상존

AI 투자 사이클과 반도체 업황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AI 밸류체인 산업에 대한 선호도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물가 지표, 최근 급등했던 기술주 중심으로 단기 차익실현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KOSPI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글로벌 AI 사이클과 국내 주도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초부터 미국 증시에서는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EPS 추정치 상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지정학 리스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이러한 펀더멘털 개선 흐름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지정학 리스크 완화 이후 시장의 관심이 다시 기업 실적과 AI 투자 사이클로 이동하면서 반도체 및 기술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이어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 시장이 여전히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증시 입장에서도 이는 매우 긍정적인 환경이다. 현재 KOSPI 상승은 단순히 일부 테마성 종목에 국한된 흐름이 아니라 반도체·전력 인프라·AI 서버·데이터센터 관련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핵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은 지수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글로벌 AI Capex 확대 → 반도체 업황 개선 → 국내 수출 및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현재의 강세 흐름 역시 쉽게 꺾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도표 2. 연초와 달리 급등 중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국내도 미국도 소수 주도주 쏠림이 강화되고 있는 건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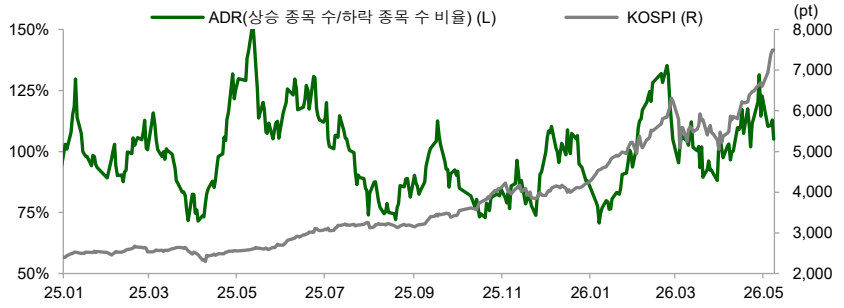
다만 단기적으로는 경계해야 할 변수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국내외 기술주의 상승 속도가 매우 가팔랐다는 점에서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근 KOSPI와 S&P 500의 ADR 지표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소수 주도주 쏠림 형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미국-이란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이번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역시 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벤트다. 특히 미·중 협상 과정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 희토류, 관세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재차 부각될 경우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흔들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미국 4월 CPI와 PPI 역시 중요한 변수다. 최근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부담이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인플레이션 재확인 여부에 따라 증시 역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도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AI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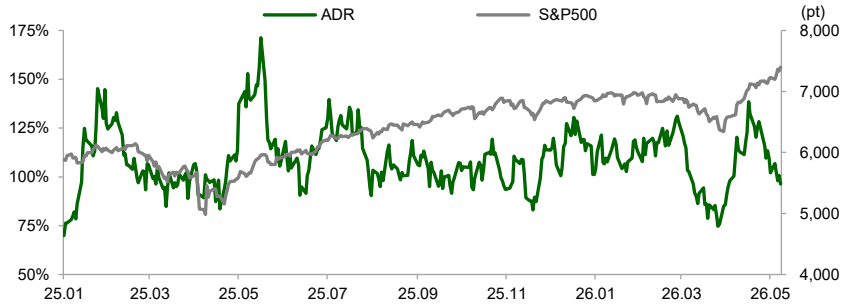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중심축은 여전히 AI와 기술주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추후 단기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5월 20일 예정된 NVIDIA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반도체와 AI 관련 업종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아직 포지션 축소를 고려할 시점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최근 시장은 AI 투자 확대에 따른 실적 모멘텀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존재하나 AI 중심의 이익 모멘텀이 유지되는 한 시장 자금은 다시 기술주와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재차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도표 3. KOSPI ADR 추이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S&P500 ADR 추이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강세장의 양면: FOMO와 사치 소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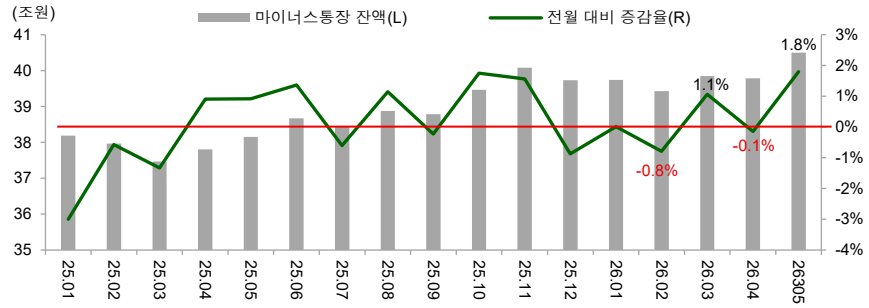
FOMO가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 증시

최근 국내 반도체 업종에서는 전형적인 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단기간 급등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는 점차 둔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개인 순매수세 유입이 관측되고 있다. 단순히 저가 매수 관점이 아니라 상승 추세 자체를 추종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심리가 점차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 역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한 선호도가 빠르게 식기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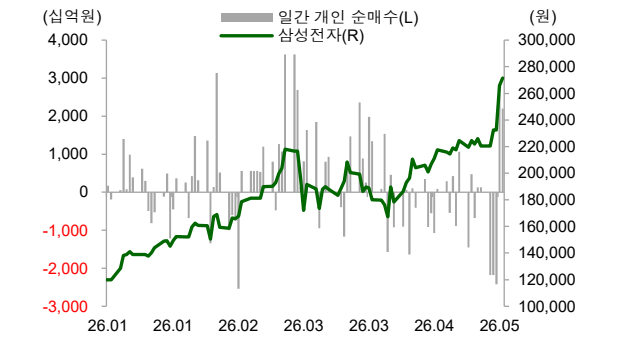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 추종이라기보다 "AI 사이클에서 핵심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시장 수익률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AI 반도체에 주목하는 환경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 역시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보다 AI 산업 성장에 따른 실적 모멘텀 지속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도 향후 단기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추세 훼손보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분간 개인 자금의 AI·반도체 업종 선호 현상은 쉽게 약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도표 5.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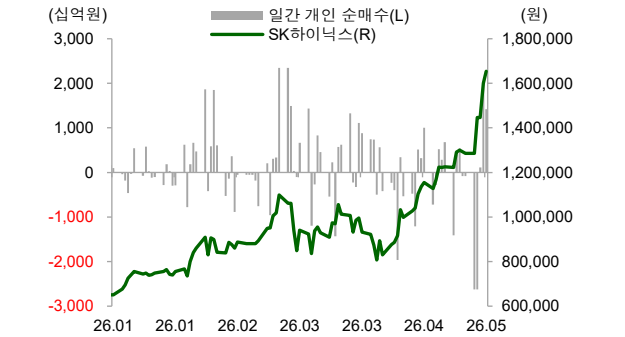
주) 5 대 시중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 농협) 기준
자료 : 언론종합,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삼성전자 일간 개인 순매수 및 주가 추이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SK하이닉스 일간 개인 순매수 및 주가 추이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강세장 국면에서는 단순히 주도 업종만 추종하기보다 증시 활황에 따른 간접 수혜

강세장의 수혜 업종
1)증권,
2)프리미엄 소비재

강세장 국면에서는 주도 업종뿐 아니라 증시 활황의 간접 수혜 업종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거래대금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증권 업종과 소비 양극화 흐름 속에서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사치소비재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증권은 거래대금
확대뿐만이 아니라
운용손익도 개선 가능

특히 증권 업종의 경우 최근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와 신용공여 확대, 투자자예탁금 유입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일반적으로 강세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신규 유입과 회전율 상승이 동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브로커리지 수익뿐 아니라 신용융자 이자수익, 금융상품 판매수익, IB 및 운용 부문 실적 개선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 국내 증시의 경우 AI·반도체 중심의 강한 주도주 장세가 이어지며 개인 투자자들의 FOMO 심리 역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거래대금 증가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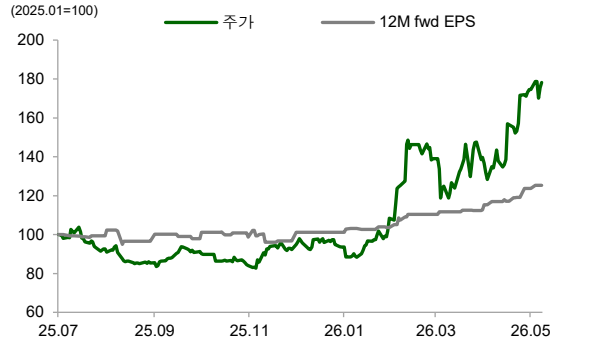
해외여행의 대체재에 주목

또한, 소비 측면에서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해외여행 및 해외 소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항공권 내 유류할증료 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원화 약세 환경이 이어지면서 해외 체류 및 소비 비용 역시 과거 대비 크게 상승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여행 수요 둔화를 의미하기보다 소비의 방향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과거에도 환율 상승과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해외 소비 일부가 국내 프리미엄 소비로 이동하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자산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소비 양극화 현상이 강화되며 고소득층 중심의 소비는 경기 둔화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백화점, 프리미엄
뷰티/패션, 미용의료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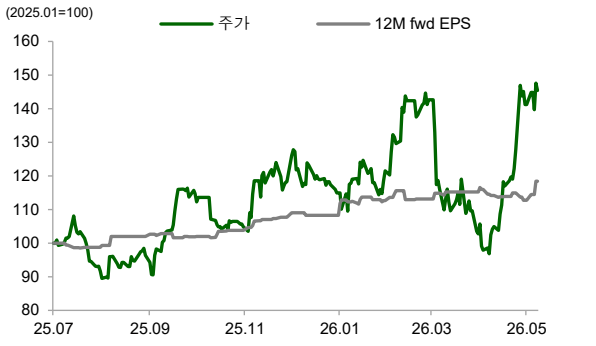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국내 내수 소비에서는 단순 대중 소비보다 프리미엄 소비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백화점, 프리미엄 뷰티, 고가 패션, 미용의료 등 가격 전가력이 높고 브랜드 경쟁력이 강한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자산시장 강세와 맞물려 소비 심리 역시 일부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결국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단순 경기민감 소비보다 가격 결정력이 높고 소비 여력이 유지되는 프리미엄 내수 소비 업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도표 8. 롯데쇼핑 EPS 추정치 및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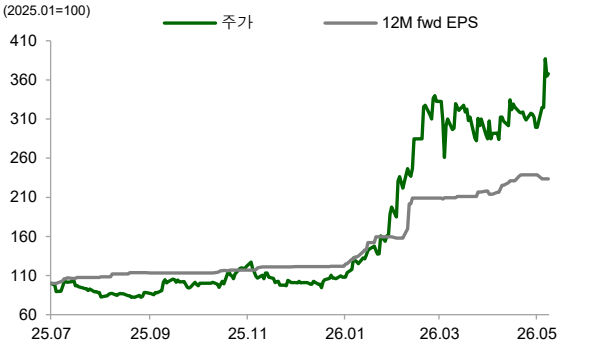
주) 2026.05.0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9. 현대백화점 EPS 추정치 및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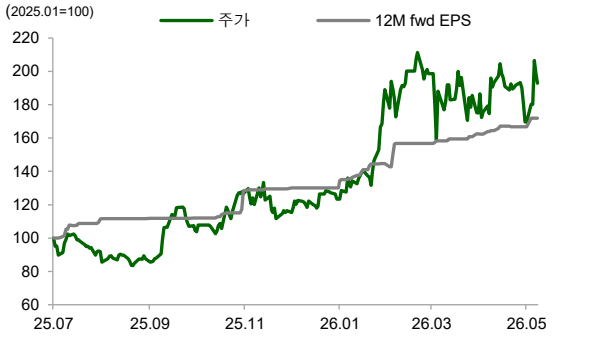
주) 2026.05.0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미래에셋증권 EPS 추정치 및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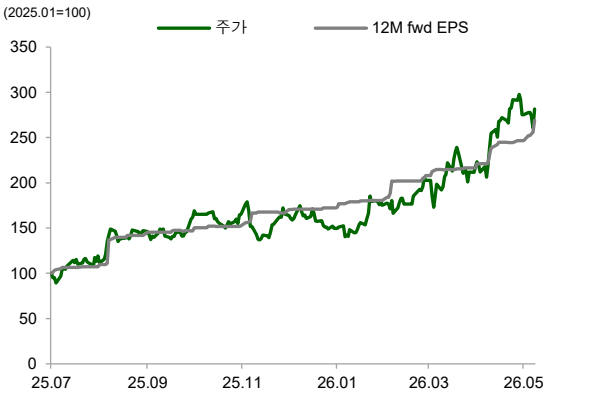
주) 2026.04.17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키움증권 EPS 추정치 및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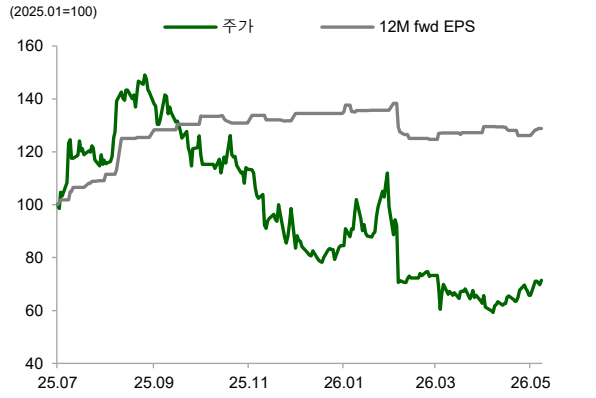
주) 2026.05.0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2. 에이피알 EPS 추정치 및 주가 추이



주) 2026.05.0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3. 파마리서치 EPS 추정치 및 주가 추이



주) 2026.05.0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증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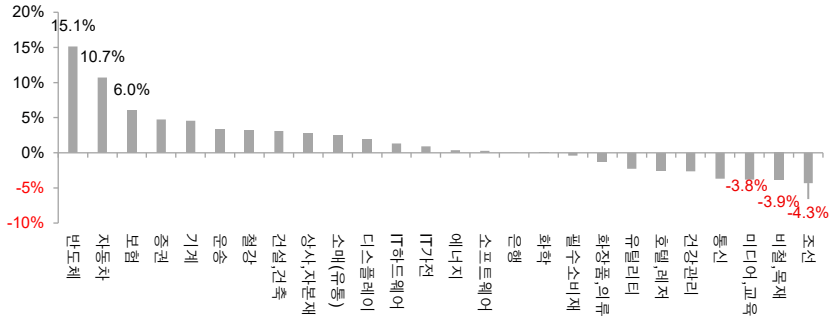
5/8 KOSPI 종가 7,498pt로 주간 수익률 +13.6% 기록하며 3주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 경신

지난주 KOSPI는 7,498pt로 마감하며 주간 수익률 +13.6%를 기록했다. 3주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보험, 증권, 기계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글로벌 증시 내 반도체 강세와 연동되며 반도체 업종의 압도적인 수익률이 특징적이다. 자동차의 경우 피지컬 AI 기대감에 따른 로보틱스 업종의 반등이 반영되며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미디어/교육, 운송, 디스플레이,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지속

주요 업종의 이익 모멘텀 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철목재, 화학과 같은 전통 시클리컬 업종과 반도체, IT하드웨어, IT가전의 제조업이 눈에 띈다. 이외에도 건설/건축, 상사/자본재, 화장품/의류, 유통, 증권의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미디어/교육, 운송, 디스플레이, 자동차는 강세장 속에서도 이익 모멘텀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도표 14. 한국 증시 업종별 주간 수익률(~2026.05.08)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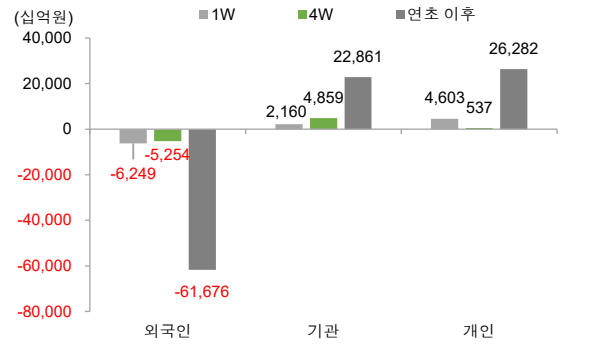
도표 15. 한국 주간 업종별 수익률 및 12MF EPS 추정치 변동 테이블(~2026.05.08)

	주간 수익률 (%)					12M fwd EPS 추정치 변동 (%MoM)				
	04.10	04.17	04.24	04.30	05.08	04.10	04.17	04.24	04.30	05.08
KOSPI	9.0	5.7	4.6	1.9	13.6	29.2	26.4	35.0	39.5	23.4
KOSDAQ	2.8	7.0	2.9	-1.0	1.3	3.5	2.9	2.7	3.2	3.1
에너지	4.4	2.3	6.0	6.6	2.7	2.3	6.6	6.6	43.5	38.0
화학	6.7	6.1	7.7	0.7	3.1	22.7	12.9	5.5	36.5	53.7
비철목재	6.1	5.7	-1.6	-2.4	-1.6	7.5	3.1	6.0	6.1	2.1
철강	6.8	3.5	6.8	9.8	9.9	-0.7	-0.6	-1.7	0.2	3.5
건설/건축	19.4	2.3	3.3	-1.1	1.8	-0.9	0.3	8.6	10.6	16.7
기계	7.1	8.7	14.0	6.6	9.1	2.3	3.1	3.7	4.5	4.8
조선	1.3	5.8	16.2	-0.4	-4.2	1.7	1.9	1.5	3.0	5.0
상사/자본재	8.2	3.7	4.2	3.9	10.9	16.3	12.7	12.8	13.2	16.9
운송	6.4	0.2	-0.9	-0.9	4.2	-1.1	-8.6	-9.9	-9.2	-6.8
자동차	3.1	7.4	-2.9	1.6	12.4	-0.6	-1.0	-2.8	-3.8	-2.7
화장품/의류	7.6	5.2	4.8	-3.1	0.0	2.3	3.6	3.7	5.6	8.6
호텔/레저	4.3	4.1	0.4	0.9	-2.3	-6.3	-0.6	-0.8	0.3	-1.5
미디어/교육	-1.2	4.6	-1.6	1.8	-5.0	-1.9	-2.6	-4.3	-13.1	-13.0
유통	5.9	7.9	7.0	1.7	1.7	1.6	1.6	2.7	4.3	5.9
음식료/담배	3.2	4.2	0.4	0.8	-0.4	0.7	0.2	-0.8	-0.4	1.5
헬스케어	0.3	4.7	-1.3	-3.4	-2.9	2.0	1.5	3.5	3.8	3.9
은행	7.7	2.7	-0.9	-0.0	-1.1	0.9	1.0	1.4	1.6	1.3
증권	8.4	3.9	-1.3	-4.1	14.3	5.3	6.5	8.0	6.4	4.1
보험	5.3	4.6	-2.8	0.3	9.8	0.1	0.6	0.1	0.1	0.7
소프트웨어	3.2	7.7	-1.0	-1.0	0.9	0.9	0.6	-0.3	-1.1	0.4
IT하드웨어	14.4	12.5	13.8	2.0	7.2	7.2	7.1	7.2	12.6	14.6
반도체	12.7	6.8	4.5	2.4	24.4	45.7	41.2	55.1	61.7	31.8
IT가전	7.0	5.4	12.8	3.8	3.5	-3.4	-4.0	-5.6	7.0	17.6
디스플레이	11.7	11.2	-1.4	-0.4	4.2	2.3	3.6	-5.7	-9.4	-6.9
통신	10.9	3.9	-1.3	-3.7	-2.5	0.6	-0.0	-0.3	-0.2	-0.3
유틸리티	5.1	5.5	2.5	-3.6	-1.6	0.6	-0.0	-0.3	-0.2	-0.3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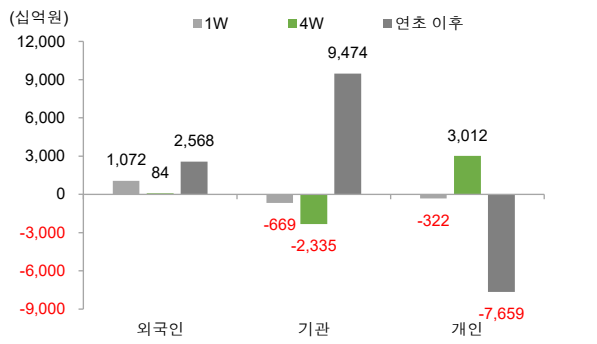
지난주 외국인은 KOSPI는 순매도 했으나 KOSDAQ은 순매수 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화학, IT 가전을 순매수했으며 반도체 업종에 대한 순매도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성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기관의 경우는 KOSPI와 KOSDAQ 양 시장 모두를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 IT하드웨어, 증권, 상사/자본재를 순매수 한 반면 건강관리, 조선, 화학, 건설/건축, 은행을 순매도했다.

도표 16.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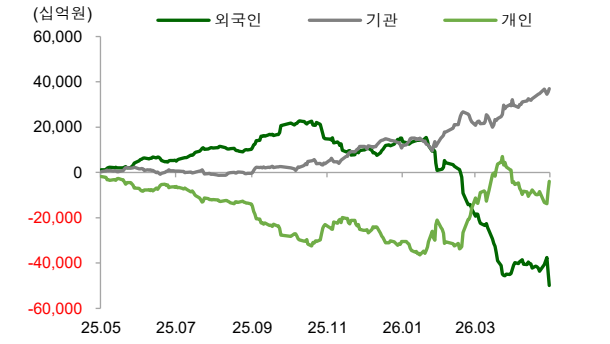
주) 2026.05.0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7.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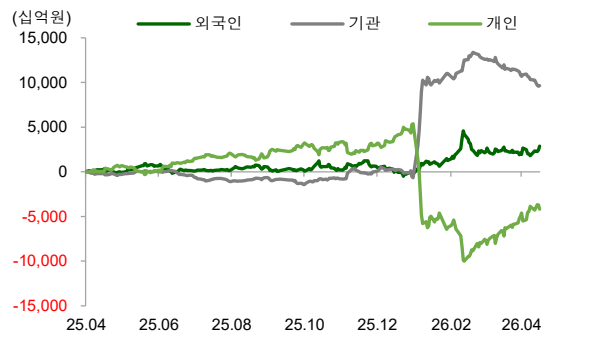
주) 2026.05.0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8.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5.0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9.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5.0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0. 주간 외국인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순매수 TOP5	자동차	485.0
	화학	421.4
	IT가전	313.8
	에너지	61.7
	철강	52.4
순매도 TOP5	반도체	-3392.9
	상사,자본재	-946.4
	조선	-240.2
	기계	-198.8
	IT하드웨어	-138.7

주) 2026.05.0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1. 주간 기관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순매수 TOP5	반도체	2,493.9
	자동차	305.4
	IT하드웨어	227.8
	증권	168.7
	상사,자본재	88.3
순매도 TOP5	건강관리	-516.9
	조선	-374.1
	화학	-295.3
	건설,건축	-215.5
	은행	-213.4

주) 2026.05.0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이벤트 캘린더

월	화	수	목	금
				5/1 미 4월 ISM 제조업 지수 한 4월 수출입 XOM, CVX
5/4	5/5	5/6	5/7	5/8
	미 4월 ISM 서비스 지수 미 3월 JOLTs	미 4월 ADP 취업자 변동		미 4월 고용지표 미 4월 실업률
BRKB, PLTR	AMD, ANET, PFE	DIS, APP, UBER, CVS, DASH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심텍 현대백화점, GS피앤엘, 에스엠 카카오뱅크,	MCD, GIL, ARM, ANB LG, 에이피알, 한국항공우주,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SK텔레콤 HD한국조선해양, 카카오	미 5월 소비자신뢰지수 파마리서치,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 HDC, 현대지에프홀딩스, 원익IPS
5/11	**5/12**	**5/13**	**5/14** **미중 정상회담(~15일)** **미국 4월 소매판매**	**5/15**
	미 4월 CPI	**미 4월 PPI**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에스오일, 시프트업, 데브시스터즈	**미래에셋증권, 한화생명, 펄어비스, CJ제일제당, 신세계, 달바글로벌**	**GS, SK이노베이션, CJ대한통운, 더블유게임즈**	**AMAT 삼성화재, 삼성생명, 메리츠금융지주, 이수페타시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5/18	5/19	5/20 4월 FOMC 회의록 공개	5/21	5/22
SK, 오리온	HD	NVDA, CSCO, TJX	WMT, DE, INTU	
5/25	5/26	5/27	5/28 BOK 금융통화위원회 미 1분기 GDP 잠정치	5/29 ASCO (~6/2)
	PANW	LOW	DELL	

주) 기업 실적 발표일은 추후 변동 가능, 각국 일정은 현지시간 기준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